

태평양전쟁 日 강제동원 희생자 '80년만의 귀향'

타라와섬서 희생 고 최병연씨 고향 영광서 추도식·선산 안치 유족 "4년간 긴 기다림" 눈물 시민단체 "일본 사과 없어" 비판

태평양 전쟁 당시 일제에 의해 강제 동원됐던 희생자 고(故) 최병연씨의 유해가 8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왔다.

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희생자 최씨의 유해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봉환됐다. 최씨는 1943년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태평양 타라와섬에서 벌어진 타라와 전투에 강제 동원돼 희생됐다.

지난 2019년 정부는 미국 국방부 전쟁 포로 및 실종자 확인국(DPAA)이 발굴한 아시아계 유해 유전자 교차 분석을 통해 최씨의 신원을 확인했다. 태평양 격전 지서 신원이 확인된 한국인은 최씨가 유일하다.

당시 25세였던 최씨는 타라와섬에 끌려간 지 1년 만인 1943년 11월 일본군과 미군 전투에 휘말려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투로 6000명 이상이 전사했으며, 이 중 한국인 강제동원자는 1000여명에 달한다.

최씨의 유해는 이날 고향 땅 영광으로 옮겨졌고 영광문화예술의전당에서 고인의 넋을 기리기 위한 추도식이 거행됐다. 추도식에는 유족과 이상민 행안부 장관, 강종만 영광군수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최씨 유족들은 태극기로 감싼 소관에 담긴 최씨의 유해를 보고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80여년 만에 마주한 가족의 모습



4일 태평양전쟁 당시 일제에 의해 강제동원됐던 고 최병연씨의 유해가 80여년만에 봉환된 가운데 영광문화예술의전당에서 추도식이 진행되고 있다. 고 최병연씨의 차남 최금수씨가 추도식에서 향을 피우고 있다.

에 후손들도 감격해하는 모습이였다.

유족 대표로 최씨 차남 최금수(82)씨가 추도사를 낭독했다. 장남 최항주씨는 아버지 유해를 끝내 보지 못하고 지난해 세상을 떠났다.

차남 최씨는 "어린 나이에 아버지와 작별해 기억은 없지만 어머니와 형님께서 늘 아버지와 헤어졌던 날을 말씀해 주곤 했다. 아버지께서 형과 저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다시 만날 때까지 어머니와 잘 지내고 있으라'고 하고 태평양 전쟁터로

끌려갔다고 말했다"며 "아버지가 끌려간 곳이 태평양 작은 섬 타라와라는 것을 한참 후에야 알았다"고 회고했다.

이어 최씨는 "2019년 기적처럼 타라와에서 아버지의 유해를 찾았다는 소식을 듣고 형님과 저는 당장 아버지를 고국에 모셔 올 수 있을 거라는 부푼 기대를 가졌지만 코로나와 여러 사정으로 또다시 4년이라는 기다림을 견뎌야 했다"며 "그 사이 작년 겨울 형님은 아버지 유해를 선산에 모시기를 부탁하며 세상을 떠났고 이제

저만 홀로 남아 아버지를 맞이하게 됐다"고 울먹였다.

최씨 유해는 흥농읍에 위치한 선산에 안치됐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남은 강제동원 희생자들의 유해 봉환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뜻을 밝혔다.

이 장관은 추도사를 통해 "우리 정부는 2019년부터 미국 DPAA에서 발굴한 아시아계 유해에 대해 한미일 공동 유전자 감식을 실시했고, 이를 통해 태평양 격전

지에서 아시아계 최초 최씨 유해를 기적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며 "강제동원 희생자 유해 봉환은 국가 책무이자 우리의 아픈 역사를 치유하기 위한 중요한 일이다. 정부는 마지막 한 분의 유해가 국내로 봉환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강제동원 희생자들에 대한 위령 사업과 조사 연구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추도식 시작 전 일본정부의 사죄를 촉구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나왔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모임)은 영광문화예술의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제강제 동원 피해자에 대한 일본 정부의 사과와 배상을 요구했다.

모임은 "뒤늦게 유골이라도 가족 품으로 돌아온 건 다행이고 기적 같은 일이지만 이 과정에 이르기까지 일본 정부의 성의나 노력은 없었다"며 "일본 정부는 2016년 '전몰자 유골수집 추진법'을 제정해 제2차 세계대전 전몰자 유골을 발굴하면 DNA 대조를 거쳐 유족에게 인도하고 있다. 단 DNA 검사 결과가 일본인으로 나올 경우만이고 한국인 피해자는 원초적으로 배제해 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모임은 이날 일본 측이 추도식에 참석하지 않은 것을 두고 '반인도적 행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들은 "오늘 80년 만에 고향 땅을 밟은 뜻깊은 추도식에 정작 가해자 일본은 추모식은커녕 얼굴조차 비추지 않고 있다. 용납할 수 없는 반인도적 행위가 아닐 수 없다"며 "전범국 일본은 무고한 조선인을 사지로 끌고 간 것에 대해 사죄하고 법적 책임과 상응하는 배상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글·사진=강주비기자

광주 남구 주민 '정율성로 도로명 유지' 76.3% 찬성

주민 의견수렴 자체 설문조사

광주 남구 정율성로 거주 주민 70% 이상이 도로명 주소 유지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광주 남구는 지난달 1일부터 20일

까지 양림동 일대 아파트, 주민, 상가 등 1000여 세대를 대상으로 '정율성로 도로명 주소 변경' 의견을 묻는 자체 설문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설문 결과 1013세대 중 737가구가 참여했으며 이 중 562세대(76.3%)가 정율

성로 도로명주소 유지를 찬성, 175세대(23.7%)가 반대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 10월12일 6·25 전쟁 당시 남침에 앞장섰던 인물을 기리는 정율성 이력을 문제 삼아 정율성로에 대한 도로명 변경을 시정 권고했

다.

이에 남구는 행안부 시정 권고에 따라 주민 의견을 파악하기 위해 자체 설문 조사를 진행했다.

도로명주소가 변경되려면 도로명을 사용하는 주민의 5분의1 이상의 신청과 의뢰수렴 절차 및 심의위원회 개최, 고지서 주소 변경 등 과정을 거쳐야 한다.

광주 남구 관계자는 "도로명 부여 당시 법적 요건과 절차를 준수했으며 현재

위법사항이 없다"며 "도로명주소 변경은 행정기관에서 직권으로 추진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정율성로' 도로명주소 명명은 지난 2008년 12월 20일 남구 양림동 출신 정율성이 중국에서 유명한 음악가로 활약한 업적을 기리고 당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과 연계해 중국 관광객 유치와 문화관광사업 활성화 차원에서 부여됐다.

정상이 인턴기자 sangajjeong@jnilbo.com

유네스코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조선시대 성리학의 대가 [하서 김인후 선생]의 숨결이 살아 있는

장성 필암서원

청산도 절로 절로
녹수도 절로 절로
산도 절로 물도 절로하니
산수간 나도 절로
아마도 절로 삼긴 인생이라
절로절로 늙사오리

- 김인후 선생의 '자연가(自然歌)' -